

◆ 대만의 정권교체와 환경문제의 대두 ◆

민주진보당 정부 출범과 제4원자력발전소

1. 대만의 정권교체와 반핵운동

정치에서는 밀월(蜜月)이라는 것이 오래 지속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천수이벤(陳水扁)의 밀월은 보통의 경우보다도 더욱 짧았다. 그의 총통취임사에서 베이징(北京)과의 관계의 지뢰밭을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건너 갔던 이 신입 총통은 대만의 제4 원자력발전소에 관련된 선거공약 문제에 바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60억 달러의 이 원자력발전소는 대만 수도(首都)에 인접한 지방에 건설 중인데 그 동안 몇 년을 두고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영전력회사인 대만전력공사를 포함한 이 프로젝트의 지지자들은 대만 섬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것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건설 공사는 이미 3분의 1이나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천(陳) 총통과 그의 민주진보당(DPP)은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였다.

2. 1999년의 지진과 대규모 정전사태

총통선거 운동기간 동안 천 후보는 그가 만일 승리한다면 30억달러 이상이 이미 투입되었거나 계약이 되었다 라도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공약하였으며 그의 총통취임 1주일 전에 약 1,000명의 반핵운동 행동대원들은 타이베이(臺北) 거리에 나와서 그의 선거공약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 천 총통은 그것은 “예스 또는 노라고 간단히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에 대하여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만의 비즈니스계 인사들은 천 총통이 다음에 취하게 될 조치를 그의 정부의 독단성에 대한 중대한 첫 시험으로 보고 있다. 하이테크 산업이 전력공급을 몇 주일간이나 받지 못하게 한 1999년의 지진으로 대만의 전력수요사는 더욱 산업계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정전이 그들에게 생산의 손실과 세계 전자시장을 통해서 전파된 파장으로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끼쳤다.

3. 산업계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지

새로운 제4원자력발전소는 발전용량 270만kW로서 2004년에 운전에 들어가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 극단적인 전력부족이 있을 것이라는 대만전력공사의 경고가 나온 후 2000년 5월에 실시한 조사는 중국산업연합회 회원사의 3분의 2가 이 발전소의 준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단지 8%만이 프로젝트의 중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산업인들은 전력공급이 중요하며, 다른 한편 공공(公共)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라고 연합회의 류시동씨는 말한다. “정부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그러나 반핵단체들은 몇몇 영향력 있는 동맹자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동맹자들 중에는 대만의 가장 저명한 사업가인 포르모사 플라스틱의 Y.C. 왕회장이 포함되어 있다. 왕회장은 적절한 환경보호장치를 구비한 동등한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 비용의 30%로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4. 미국 상공회의소의 관심

반핵 활동가들은 또한 대만전력공사가 핵에너지에 대한 적절한 대체에너지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공공을 오도(誤導)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로비 그룹인 환경보호연합(EPU)의 의장인 국립대만대학의 쉬신밍 교수는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취소는 적절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천(陳) 총통이 프로젝트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발전소에 대한 공공의 반대가 가장 강력하고 민주진보당이 대부분의 지방정부를 관장하고 있는 북부대만의 실질적인 지지를 그의 당(黨)은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쉬 교수는 경고한다.

영향력이 있는 외국인 비즈니스 로비기구인 미국상공회의소도 또한 깊

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원자로와 기타 기기를 공급하기 위한 18억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취소된다면 계약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성명서에서 미국상공회의소는 중요한 포인트로서 정부는 신뢰성 있는 전력을 산업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과 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에 대하여 정부는 언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5. 재평가위원회의 구성

다른 비즈니스 매니저들은 첫단계는 몇몇 반핵운동가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길거리 또는 국민투표에 의한 문제해결을 방지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만일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비

즈니스의 신뢰성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한 미국 비즈니스 관측자는 말한다.

현재까지 정부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새 경제장관인 린신이씨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재평가위원회를 임명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발전소를 건설할 것인가 건설하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전력공급 능력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이다”라고 전에 민주진보당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였고 새로 부수상으로 임명된 유쉬쿤씨는 말한다. “만일 우리가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자료: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0. 6. 8.)

환경주의자들과 제4원자력발전소와 댐

1. 민주진보당의 선거공약

무더운 오후의 타이베이(台北) 거리에서 확성기의 반핵(反核) 연설이 뒤에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린이슈앙씨는 항의시위를 하면서 그림엽서를 통행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었다. 이

엽서에는 “제4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라고 쓰인 플래카드 옆에 서있는 대만의 새로 취임한 총통 천수이벤(陳水扁) 후보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이 사진은 천수이벤 총통이 지난 3월에 가가스로 승리를 거두기 몇 개월 전에 찍은 사진으로 이 스냅

사진은 플래카드에 한 그의 서명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카리스마적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증거품이 그를 괴롭히기 위하여 부메랑처럼 되돌아오지나 않을까 불안해 하는 것으로 보였다. 결국 그것은 그에게로 되돌아

왔다. “그는 그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가 지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린씨는 말한다. “우리는 그가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덧붙여 말한다.

타이베이로부터 40km 밖에 떨어진 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 말썽 많은 56억달러의 제4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는 환경친화적인 정당으로서 반핵의 정당강령을 가지고 있는 민주진보당(DPP)에 새 총통이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성장하고 있는 환경운동은 이 발전소를 고철덩어리로 만들 수는 없다는 시사(示唆)에 대하여 투쟁할 준비를 하고 꺾기하였다. 국영의 대만전력공사(臺灣電力公司)에 의하면 이 발전소는 20년전에 국민당(KMT)정부에 의해서 계획되었으며, 이미 공정상 31%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완공되면 270만kW의 발전용량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 발전소는 이 전력회사 소유 총발전설비의 약 7%에 해당한다. 대만전력공사의 한 간부는 이 프로젝트에서 14억달러가 이미 지출되었고, 여기에 추가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14억달러가 되며, 만일 프로젝트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계약 금액 중 8억 1900만 달러는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2. 에너지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

공공(公共)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싸움에서 대만전력공사와 전(前)정부는 이 발전소를 완공해야 하는 많은 이유들을 나열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억지 이유는 대만섬의 에너지소비가 2020년에 두 배가 된다는 것이었다. “때때로 나는 우리에게 대한 비판자들에게 우리는 작은 섬에서 높은 생활수준을 원하는 2200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라고 대만전력공사의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위원회의 유생승씨는 말한다. “어떤 진정한 해결책을 수행하는 것보다 비평하는 일은 훨씬 쉽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대만은 필요로 하는 에너지자원의 90% 이상을 석탄과 기름의 형태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의 화석연료는 대만섬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서서히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보다 청결한 연료 사용을 증가시키고는 있으나 이와 같은 청정연료가 비교적 고가이기 때문에 1998년 현재 대만 전력생산에 겨우 6%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는 9.7%를 점유하고 있다.

3. 재평가 결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환경주의자들은 저렴하고 청결한

대체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옛날의 국민당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조장하였기 때문에 대만섬의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급과 자원에 대하여 말하지만 매니지먼트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라고 환경 싱크탱크인 타이완 위치 인스티튜트의 최고경영책임자(CEO) 조지 생씨는 말한다. 그와 다른 인사들은 대만전력이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추어 전력 기기의 성능을 격상시키면 제4원자력발전소를 취소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친(陳)정부는 제4원자력발전소가 “재평가”받는 동안 이 프로젝트에서의 새로운 계약을 위한 입찰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2000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재평가의 결과를 마음을 조이며 기다리고 있다. “만일 평가결과가 우리가 이 발전소를 필요로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우리들은 열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민주진보당의 의장을 은퇴한 린이시용씨는 말한다. 그는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여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1994년에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6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는 것이다.

4. 산 넘어 또 산

만일 친(陳) 정부가 첫번째인 원자력발전소의 환경시험을 상처를 입지 않고 해쳐나가게 되더라도 또 다른 함정들이 앞길에 가로놓여 있다. 이 함정리스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남부대만의 메이닝댐 건설이다. 국민당(KMT) 정부는 이 댐이 남부의 깨끗한 물에 대한 주거용 및 산업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댐은 세계에서 나비 종(種)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인 옐로버티플라이 계곡을 물에 잠기게 만든다. 또한 친(陳) 총통의 원자력 공약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도 환경주의자들은 메이닝 프로젝트는 난도질을 당하여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댐은 죽었다. 이 댐은 저지되어야 한다”라고 경제학 교수이며 대만 환경보호연맹의 전(前) 의장이었던 왕토파씨는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활동가들은 대만의 멸종위기에 빠진 새들의 겨울 서식지인 치쿠 습지와 같은

자연의 보고(寶庫)가 신속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투쟁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나는 민주진보당이 집권하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천진난만하지는 않다”라고 왕교수는 말한다. 그는 필요할 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의 깃발과 포어가 쓰인 피켓을 편리한 곳에 보관하고 있을 것임이 틀림없다.

(자료: 『Business Week』, 2000. 6. 19.)

미국—주택용 전기사용 고객을 공략하는 벤처기업

1. 엔론사 그리고 AOL와 IBM의 제휴

에너지 거대기업인 엔론 코퍼레이션이 1997년 늦게 캘리포니아의 주택용 전기시장에 처음 진출하려고 하였을 당시, 주(州)의 규제 때문에 전기사용 고객에게 큰 비용절감을 가져다 줄 기회나 큰 이익을 얻을 만한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회사는 이 시도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2000년 5월 16일 엔론은 아메리카 온라인(AOL)과 아이비엠(IBM)

과 함께 새 전력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전국의 1300만 달러 전력소매 시장에 대하여 진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가장 최근의 시도는 단지 미국의 오랜 세월 규제되어온 전력산업 시장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에 불과하다. 1977년 이후 캘리포니아 이외의 다른 23개 주(州)도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개방하였으며, 따라서 가스 또는 전력공급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전기사용고객의 수가 금년의 8100만호로

부터 2005년에는 1억 400만호로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경쟁은 전기사용 고객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을 삭감시킬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규제가 철폐된 가장 큰 시장이다”—장거리 전화사업 규모의 두 배—라고 전(前)에 에이티앤디(AT&T) 컨슈머 서비스의 사장이었고 이제는 엔론이 뒤에서 지원해주는 뉴파워 컴퍼니라고 불리는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CEO)인 H. 유진 록하트씨는 말한다.

2. 온라인에 의한 전력구입과 요금지불

엔론은 또한 인터넷이 잠재적인 전기사용고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승부를 걸고 있다. 뉴파워의 AOL와의 배타적인 마케팅 제휴는 2200만 이상의 전기사용 고객들에게 순간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하며, 이들 전기사용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전력을 구입하고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IBM은 10년간의 아웃소싱 딜로 전기요금 청구와 고객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엔론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아이디어”를 보여주었다고 살롱 스미스 바니의 분석가인 레이먼드 C. 나일스씨는 말한다.

벤처 지분의 60%를 당초에 소유하게 되는 엔론은 그가 가장 잘 하는 부문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즉 그의 거대한 교역사업 부문을 통한 전력의 확보 그리고 리스크 관리와 조절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엔론의 3명의 경영간부가 코네티컷주(州) 그리니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벤처 비즈니스에 합류한다.

3. 전기요금 10~30% 절감 약속

뉴파워는 저명한 대기업이 후원자라는 것이 말이 없는 전기사용 고객들의 신임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약 18개월 전에 이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동안에 단지 10%의 고객만이 전력공급자를 바꾸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케임브리지 에너지 리서처 어소시에이츠의 샤론 M. 라이슈스씨는 말한다. 엔론의 등장은 의식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도전은 전기사용 고객들로 하여금 그들이 스스로 선별하여 공급자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다”라고 온라인 경쟁자인 유틸리티닷컴(Utility.com)의 CEO인 크리스 S. 킹씨는 말한다.

뉴파워의 가장 큰 매력은 에너지 요금청구서에서 10% 내지 3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약속이다. 전기사용 고

객들은 또한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단골고객에게 주는 추가 마일과 기기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피크 및 오프 피크시 전기사용자와 다년(多年) 계약자에 대한 가변(可變) 요금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새로운 제도는 오랫동안 미국의 보호를 받아온 전력사업 시장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전기사용 고객들에게 그들의 전기사용 시간대를 옮기는데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피크 수요시간대의 에너지 부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규제철폐는 실시간(리얼타임) 요금과 실시간 계량을 가져오게 만든다”라고 대규모 회사들에 대한 에너지 수요를 취급하는 엔론에너지 서비스의 CEO인 루 L. 파이씨는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뉴파워는 많은 전기사용 고객들에게 전력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자료: 『Business Week』, 2000. 5. 29.)

카자흐스탄—기대되는 원유매장량과 파이프라인 루트의 각축전

1. 사우디아라비아에 필적하는 매장량

카자흐스탄 앞바다 카스피해 해저에서 엄청난 원유매장량 발견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가난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몇 달에 걸쳐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카스피해의 이 나라에 속한 해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카사간 유전을 희망에 부풀어 주시(注視)하고 있다. 원유는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에 의해서 관장되고 있는 카스피해의 일부 해저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다른 쪽인 카자흐스탄 쪽에서도 큰 유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최소한도 어지간히 큰 매장량인 10억 톤의 원유를 발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소식통에 의하면 한 보고서는 이 지역이 68억톤이나 되는 매장량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것은 20년래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가장 큰 석유의 발견이 된다. 놀랄 것도 없이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5년에는 세계의 가장 큰 석유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등한 많은 석유를 퍼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미국의 계산: 바쿠 경유 터키로

만일 카사간이 진짜 분유정(噴油

井)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이 지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정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풍부한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 및 이란을 경유해서 세계시장에 내보내는 것을 저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인은 터키와 같은 비교적 안전한 곳을 경유해서 서쪽으로 자원을 흐르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그러나 러시아와 이란은 가난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거대한 이웃나라로 인연을 맺고 있으며, 이들 이웃나라는 세계시장으로의 원유 수송에 비교적 저렴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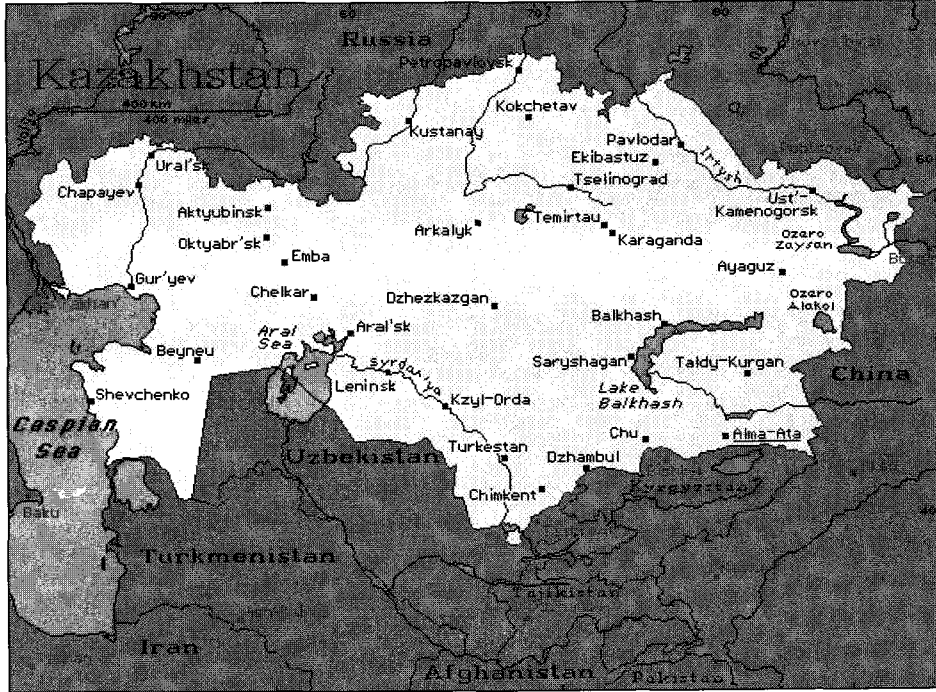
또한 석유사업으로 번영의 비전을 보이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나라들을 부추기기 위하여 미국인들은 카스피 석유 파이프라인의 라이벌 루트의 개발을 경제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다. 그들은 아제르바이잔 해안의 바쿠로부터 서쪽으로 안전한 터키의 시한항(港)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주된 아제르바이잔 석유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BP(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아모코가 그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마음이 내키지 않는 동의를 얻어낸 것이 전부이다. 이 루트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원유는 바쿠까지 탱커

에 의해서 또는 가능성은 낮지만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된다.

3. 1,730km 파이프라인 건설비: 24억 달러

한가지 어려움은 원유를 통과시키게 될 24억달러로 추정되는 1,730km (1,075 마일)의 파이프라인 건설비를 조달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현재로서는 이 파이프를 단순히 채우는데 필요한 원유조차 충분치 않다는 큰 문제가 남아있다. 카자흐스탄에서 보다 천공(穿孔)이 진척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대부분 천연가스가 나오므로써 석유사업 종사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셰브론의 리처드 매츠헤씨는 이것을 통명스럽게 “아직 수송 시스템을 찾는 어떤 원유도 없다.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은 수요발생 이전보다 수요발생 이후에 건설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카자흐스탄에서의 기대만큼 큰 원유를 발견하게 되면 그들의 파이프라인은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계획 지지자들은 말한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는 시간문제이다. 카자흐스탄 유전으로부터 기대되는 원유가 2008년까지는 상당한 양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바쿠-시한 파이프라인을



2004년까지 회사들이 완공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 이란과의 경쟁이 가능하게 된다. 원유를 걸프로 수송하는 것이 이것을 터키로 수송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이란을 경유하는 루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이란의 못마땅한 정권과 사업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적의(敵意)도 사라져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더욱이 회교율법학자들과 비즈니스를 시도한 회사들은 관료주의적인 논쟁과 기타 어려움들이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란을 경유하는 옵션에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4. 유일하고 확실한 승자: 러시아

그것이 카자흐스탄의 가능할지도 모르는 원유 노다지로부터의 유일하고 확실한 승자(勝者)는 러시아가 되는 이유이다. 상당한 양의 원유가 이 나라의 서쪽에 있는 아티로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카자흐스탄을 이미 횡단하고 있는 것이다. 새 파이프라라인이 2001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 파이프라라인은 원유를 러시아 항구인 모보로시스크항으로 수송하게 된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원유가 세계시장으로 수송되는 유일한 방법은 철도와 탱커에 의한 것으로서 이것도 빈번하게 러시아 사람들에 의존

하고 있다. 놀라워할 필요도 없이 러시아는 카스피 원유를 빨아올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많은 수송운임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만일 카자흐스탄의 원유발견이 가장 최근의 현기증 날만큼 엄청난 예산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모든 라이벌 파이프라인 시스템은 제각기 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정말 아무도 모른다. 미국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아마도 그들의 걱정거리인 난처한 프로젝트를 침몰시키지 않고 떠 있게 하기 위해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시도인지도 모른

다. 카자흐스탄 공무원들의 의기양양함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다. 정말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오로지 실제 카사간 유전에서 천공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모두 현재로서는 그들의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2~3개월 후에 나오게 될 그들의 최종보고서를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그리고 특별

히 멀리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숨을 죽이고 귀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료: 『The Economist』, 2000. 5. 27.)

◆ 베네수엘라—카라카스전력회사(EDC)를 공략하는 AES 코퍼레이션

1. 월 스트리트 식의 지배권 취득 시도

이것은 합동 체스시합으로, 베네수엘라측은 나타나지 않은 일방적인 시합이었다. 미국 버지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AES 코퍼레이션은 미국의 가장 큰 발전소 디벨로퍼로서 베네수엘라의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카라카스전력회사(EDC) 그룹에 그의 조준기를 맞추었다. 105년의 역사를 가진 이 전력회사의 경영진은 베네수엘라의 유사 이래 가장 큰 적대적 테이크오버(지배권 취득) 비드를 저지하기로 결정하여 광범위한 방어대책을 구축하였다. 애국심에 호소하였으며, 증권규제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주식의 재구매(再購買)를 꾀하였다. 그러나 AES는 패퇴(敗退)하지 않았으며 6월 12일 그 오퍼가

한이 만료되기 1주일전에 이미 EDC 주식의 52%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월 스트리트 방식의 테이크오버는 라틴 아메리카의 클럽처럼 우호적으로 영위되는 오래된 가족이 회사 지배권의 고삐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비즈니스세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33억달러의 거대기업인 AES는 성장하고 있는 그들의 라틴 아메리카 투자 목록에 EDC를 추가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AES는 낙하산부대 출신의 위고 차베스 대통령 통치하의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등에 타격을 입어 이 전력회사 주가가격이 내려앉은 유리한 환경을 포착한 것이다. 9억 5200만달러의 AES 비드는 또한 다른 현지회사들에게 낮게 평가되고 있는 주가가 그들로 하여금 잠재적인 표적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식품과 가정용

품 생산회사인 마베사는 그들이 적대적 테이크오버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의 재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2. 겨누기 쉬운 표적이 된 EDC

AES의 비드는 또한 베네수엘라에 외국투자자들의 대한 신뢰가 최소한도 체베스의 인기정치로 빚어진 짧은 기간의 불안정을 자진해서 과거지사로서 보려는 회사들 사이에서는 되살아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놀랍게도 솔직한 민족주의자인 차베스는 테이크오버 싸움이 펼쳐지고 있을 때 침묵을 지켰다. 그는 몰래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왜냐 하면 AES의 제의는 그가 경멸하는 베네수엘라의 소수 비즈니스 인사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었기 때문이다.

AES의 요청 받지 않은 비드는 4월 28일에 제출되었으며 그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EDC로 하여금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활기가 없는 소규모의 현지 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EDC의 주식은 오랫동안 낮게 평가되어 왔다. “그들을 방문한 모든 투자은행가들은 그들에게 그들이 무방비상태의 겨누기 쉬운 표적이라고 말하였다”라고 벤이코노미의 컨설팅 이사인 로버트 보텀씨는 말한다. 그러나 EDC는 대책강구에 실패하였다.

3. AES의 시도와 EDC의 대응

EDC를 2년간 연구한 AES는 현지 거래 주식에 대하여 주당 57센트와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리시츠(ADR)에 대하여 28달러 50센트를 제시함으로써 최저 45%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금액은 최초 비드시의 주가가격에 119%의 프리미엄을 가산한 것이지만 EDC의 추정 장부가액인 주당 1달러 3센트보다는 낮은 금액인 것이다.

EDC는 AES에 대하여 공공에 대한 홍보활동(PR)으로 대응하였다. “그들의 오퍼는 매우 낮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정치적인 불안정을 유리한 환경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EDC의

사장인 프란시스코 아구에러베르씨는 지난 달에 심장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말하였다. 전력회사측은 베네수엘라 전국 유가증권협회(VNSA)에 대하여 테이크오버의 저지를 요청하는 많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실제로 당국은 AES가 입찰에서 배제시키려는 목적으로 스페인 전력회사인 유니언 페노사에 대한 거래를 끊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느 시점에서 입찰을 연장하였었다.

4. EDC의 연간 매출액: 8억 4천만 달러

AES를 막아내기 위한 필사적인 비드에서 EDC는 또한 회사주식의 14.5%를 회수시키게 되는 3억달러의 재매입 계획을 성사시켰다. 회사종업원들과 연금수령자들이 주도한 5월 29일의 감동적인 집회에서 이 계획은 승인되었다. “나는 베네수엘라를 팔아먹지 않겠다”라고 30년 근속의 엘리자베스 프레이터씨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말하였다.

이와 같은 애국심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EDC는 베네수엘라의 가장 크고 가장 우량한 회사로서 1999년에 8억 4천만달러의 매출과 1억 5030만달러의 실수입을 기록하였다. 이 전력회사는 카라카스의 110만 전기사용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며, 그 주식은 현

지거래소 거래액의 약 40%를 점하고 있다.

5. AES의 남 아메리카 투자목록

AES에게 있어서 EDC는 AES의 남 아메리카 투자목록에 추가시키는데 이상적인 자산이다.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퍼즐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AES아르헨티나 사장이며 카라카스 테이크오버 팀의 일원인 에듀아도 듀트레씨는 말한다. 이 회사는 과거 10년에 걸쳐 라틴 아메리카에 공격적으로 진출하였으며, 역내에서 54억달러를 투자하여 이제 그의 수입의 30% 가까이를 창출해내고 있다.

AES의 최고경영자이며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서 그의 회사의 임무가 신(神)의 자연자원을 인류에게 유익하게 봉사토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데니스 바케씨는 자기가 크리스마스 때 불이 환히 켜져 있는 카라카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벨라산 위에 있는 EDC의 거대한 십자가에 특히 고무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회사로 하여금 EDC에 대한 전력(全力)을 다한 싸움을 개시하게 한 것은 아마도 보다 세속적인 관심사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자료: 『Business Week』, 2000. 6. 19.)